

..... 마음이 깨끗하여 생각이
금주일언 이 고요하던 밤하늘이 즐
 거워움이 없고 마치 기러기가 연못을 버리
 고 가듯 이미 어리석은 깊은 수렁을 건너도
 다 (법구경·나한품 269절)

東大新聞

발행인: 송석규,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서구 권동3가 26, 전화: 220-3491-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제 121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11월 11일 (월요일)

1

교육개혁시리즈

⑥ 타대학 이수 학점

본고는 현재 7개국 25개 대학과 자대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타 대학과의 교류에 대한 토대가 확대되어 타대학 이수 학점 가능 영역이 한층 넓어졌다.

올해 해외 자대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인원은 총 1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타대학 이수학점이 가능한 대학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하와이대 일본 동경대와 유크대, 중국 남경대, 러시아 켈리크 예술대 등 6개국과 학점 및 성적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 또한 높아 교환학생 신청 지원률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공부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 교류의 이점으로 인해 교환학생수와 학점 이수 대상 대학의 수도 늘어 나고 있는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학점 제35조에 따르면 대상대학이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 협정을 맺은 경남대와 원광대와는 학점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타대학 이수학점 교류기간은 4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원칙으로 보통 3학년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지원, 선발되어 타 대학으로 파견되면 그곳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본교의 기준에 의거해 환산 조정되어 인정 받는다.

국내 교류의 학점인정은 매 학기당 6학점까지로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총 교류 학점은 1년간 12학점이며 국제 교류는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어학연수는 3학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의 공인 대학과의 진행된 대학은 없으며 6개 해외 자대 대학과 학점 및 성적교류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으로는 매학기말, 4학기 이상 학점을 이수하고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총 취득학점 평균이 평점 3.0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한상용 기자)

교육개혁평가 '최우수'

학생선발·열린교육체제등 1위...13억 지원확보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본교가 종합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개혁의 성과를 인정받고 본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본교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1위 △열린 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1위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8위 △대학의 특성화-8위 △세계화·정보화-9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13억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종합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위로 선정된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50%로 확대

소년소녀가장 선발 △장애이전선발 등이며,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졸업학점 하향조정 △전공필수 폐지 △학부제 도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이후 전국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상황을 평가하여 정려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평가서를 낸 1백3개 대학중 23개 대학을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최고 13억을 총 3백억을 나누어 지원하기로 지난 21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성과항목	개혁 전	개혁 후
특차모집 확대	정원 20%내	정원 50%로 확대
특기자 범위 확대	체육, 문화부분	분야확대
소년소녀가장 선발	-	4명
동아출학생 선발	정원 2%	정원 3%로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	10명
내신성적교과영역	전과목 총점제, 15등급	수험생 4과목 선택, 5등급 상대평가제
내신성적 비교과영역	-	점수와 반영
면접고사	가부단 결정	점수화 반영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평가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부문에 1위를 차지해 정부의 13억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요는 학생선발부문의 성과항목.

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중앙대의 경우 10월29일 교육개혁관련 설명회 자료를 제작해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인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더욱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관장은 "중앙대의 주장도 타당하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과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선발'에만 13억을 지원했으며 상대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동국대를 제외한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 지원한다"고 말했다.

'비전! 동국 1백년' 12일 경주에서

'비전! 동국 1백년' 후원의 밤이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개교 90주년 기념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고,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서을 행사에 이어 동국 발전 기금 조성을 배가시키며, 경주권과 동국 조원의 위상 제고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행사 성격에서 이번 행사의 규모와 취지를 알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수순을 살펴보면 식전 행사로 국악과 공예, 보도사진 촬영 등이 있으며, 1부 행사에는 MBC 아나운서 최창섭(경향 74쪽) 등문과 92년도 미스코리아 유하영(연영4)의 공동사회로 △개회사 △삼귀의례 △총장 인사 △이사회장 인사 △내빈 축사 △경과보고 △영향 시사화 및 사업 계획 △사총서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송석규 총장, 김병기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및 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의 밤' 경주 서을 구주소에 19일째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예전같지만 않다. 사진은 지난 6일 동국관 앞에서 개최된 2차 선거유세의 모습. (권연기사 5면)

동대신문 기자 2명 구속

'소나기' 내용중 일부 문제돼

본지 1210호(10월7일자) 소나기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편집장과 관련기자 1명이 지난 10월 16일 구속됐고, 이후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소나기 란은 학내외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해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판단, 편집장이 신의 낙서판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소나기란 내용에 대해 당국은 이적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 편집장이 신의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10월 10일 이적성 편집장과 편집장, 양지연 여

문매체부 차장이 증부서에서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증부서는 10월 14일과 15일 전 기자를 소환해 조사를 한 후 16일 오전 3시경 국보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을 제재, 배포, 소지 혐의로 파주형 편집장과 양지연 기자 구속, 사정권 편집장 간사와 김상만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나기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당국의 판단에 관승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일보의 경우 "경찰 당국은 대학신문의 이적성 여부를 계속 경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며, 대학 당국은 이번 일을 책임지고 대학신문의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명목적으로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서 사회에서 격리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논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순열 전 주간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본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대자보에 쓴 낙서를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성 언론의 매카시적 편파보도의 경향 상부의 추공에 의한 건수 올리기식 표적수사이며, 구속된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구속된 기자들은 10월24일 중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11일 현재 서을 구주소에 19일째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보리수

산사의 새벽은 어디보다도 싱그러우며 고요하다. 칙흙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별빛도 희미해 질 때면 사마는 천근같은 몸을 일으켜 새벽 예불을 준비한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때면 새벽잠이 없는 노스님의 불효행이 밟어진다. 지난밤에 긴장을 하고 잠든 탓에 5분전에 일어나 급하게 준비하였지만 4시를 어지르지 않고 도량선은 시작된다. 처음에는 산새를 비롯한 작은 삼라만상의 단장을 깨우기가 차마 미안하여 늘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탁을 친다. 그러나 잠잠은 젊은 스님에게는 마치 군인의 아침 기상 나팔소리라도 같이 꿈속에서 이리저리 들려 올 뿐이다. 밤새, 관하게 잠든 단장 이아람로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보배와도 같다. 그러나 온

산사의 새벽

도량을 울리는 목탁의 소리는 부시시 눈을 비비고 나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흐르는 개울물을 한울림 울려주고는 일을 행구고 얼굴을 비빌 때면 이미 잠은 멀리 도망가고 해맑은 정신이 찾아온다.

도량 구석구석을 돌면서 잠든 대중과 계은른 사미를 깨우는 소리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시끄러운 벨이, 아니라 온온한 목탁 소리와 청량한 열을 가락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 온 대중은 합창하고 뒤를 따르며 천수경을 읊어준다.

도량을 안위시키는 목탁선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출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고가 울린다. 하늘의 천동소리와 같이 울려오는 장삼자락은 출구는 내비같이 사뿐하리다. 때로는 느리게 동동거리다가 급하게 질 때면 마치 신들린 사람과도 같다. 이어서 문관과 목어소리는 새로운 화음을 날게 하며 날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법음이 울리고 소경이 내려지며 법당은 대중으로 가득하다.

지심귀멸례하고 시작되는 예불소리에 간절한 소원이 극락에 닿는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일체의 승가에 귀의하고 역대조사와 정법안장의 제대조사에 이르러까지 예를 울리며 총장의 안위를 기원한 후 끝나는 예불은 그대로 우주의 울림이다. 산하촌의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도량은 죽비소리로 선정에 든다. 이러한 새벽을 모르고 어찌 불교의 정감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본사 신임주간 오정수 교수 임명



본사 19대 주간 오정수(산림자원)교수가 지난 10월18일자 임명됐다.

신임 오정수 교수는 본교 일학과를 64년에 졸업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본사 사령

- ◇일수습기자
- ▲배승원(사과대 사회과학계열1)
- ▲오인택(사과대 신문방송1)
- ▲최진(생자대 생명자원경제1)

(이상 10월14일자)

교수동정

△이태균(현의학)=96년 9월부터 97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96한중과학기술자 교류연수'에 참가해 "정치적 문제가 신부인과 직결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자 중국 상해의과대 방문.

△이범산(선학)=10월7일부터 11일까지 학술발표자 중국 북경 방문. △김익기(사회학)=일본 International Lingrity Center에서 논문 발표자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방문.

△유광진(정치외교학)=10월2일부터 9일까지 호주 CQU대학과 자매결연장학 후추방문

△이승영(무역학)=10월5일부터 10일까지 아프리카연방연맹 연례강좌와 강의자 나이제리아방문.

△최창술(선학, 임기종(국문학), 목정배(불교학)=10월15일부터 18일까지 학술교류 세미나차 일본 대정대학 방문.

새롭게 태어나는 동대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대신문은 창간 46주년을 맞으며 대학의 깨어있는 양심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지표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충실히 부응하고자하는 소명 하나만으로 지령 제1210호를 이어내려 왔습니다. 정녕 정문직필의 의연한 자부심으로 어떠한 도전과 고난에도 멈춤없이 진리와 자유 그리고 학문과 지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과사현정의 용기로 학문과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 정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을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찌기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다양한 여론의 수렴을 통해 독자 대중에게 다가가는 열린 언론을 지향하는 자세에서 신문을 만들어 왔으나, 제1210호 신문을 제작하던 과정에서 독자 참여의 글 중 일부가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되어 국가와 사회의 규범 및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대신문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픔과 좌절만을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오류와 왜곡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순수하고 솔직한 용기와 반성으로 환골탈태하여 동대신문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신문은 이를 계기로 진실로 우리 사회와 대학을 올바르게 향도하는 우뚝한 등대로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매 허심탄회하게 베풀어주신 지도편달을 더욱 깊은 애정으로 가해주시고 동대신문의 밝은 앞날을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면접에 인성 관건
취업과 적극 활동토록**

요즘을 본격적인 취업바람이 불고 있다. 금년에는 유난히 무력적자감염, 임금급결 등의 징계를 취하고 있다. 이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기업의 신규채용 분야이다. 매스컴을 통해 모두들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97년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분야에 따라서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기업이 채용축소한 것으로 단정짓고 입사를 걱정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취업업무를 맡고 두번째 취업시즌을 보내면서 학생들의 취업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아왔다. 이 짧은 글에서 취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점과 제안하고 싶은 점을 간단하게 적어보고 싶다.

첫째, 학생들의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가 너무 늦다. 한 예로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도 토익성적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요즘은 입시전형에서 토익성적을 기업에서 채용시 토익성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최근엔 점수도 향상되어 우수점(7백50점 이상)자가 많아지고 있다. 영어회화의 꾸준한 훈련도 필요하다.

둘째, 영어뿐만 아니라 면접을 위한 대책 및 정보수집도 2학기 이전에 끝낼 필요가 있다. 최근 전형과정에서 면접이 70~8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의 주안점은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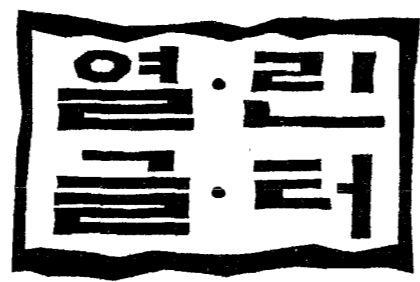
파악에 있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인성은 신뢰성, 정직함, 성실성이고 특히 면접중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파악되는 자신감도 중시한다. 학교성적이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면접을 통해서이고 모든 경쟁이 면접에서 판가를 낸다. 따라서 4학년생들은 평소 심신을 다스리고 좋은 인성형성을 노력하는 것도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취업과에서는 10월중 취업상담을 공고한 후 1천5백점의 상담용 카드를 교학과를 통해 사전에 배부하였다. 그러나 카드작성 후 취업과로 회송된 것은 겨우 1백여장에 불과하였고 상담기간중 상담을 한 학생은 10여명 정도였다. 취업과의 직원들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간의 자료수집과 노하우를 정리, 준비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입사정보제공 및 취업상담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넷째, 취업과는 입사원서의 배부 및 학생들의 진로취향과 선호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과대표를 통해 직접 연락하고 있다. 현재 많은 과대표들과의 연락을 통해 과내의 지원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과대표들과 학생들은 취업과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들이 취업과를 출입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96취업시즌은 약 3개월 남았다. 이제부터라도 취업관론을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 면접준비 등 내적인 마음의 정돈과 취업부서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나가기 바란다.

김영수
(취업과 직원)



**적극적 참여로
안방선거 벗어나자**

증강고사자 끝난 동약은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신입생인 나로서는 처음 접하는 대학의 선거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총학, 단대별 등의 다양한 선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고, 후보자 등록이 끝난 현재 야승을 제외한 다른 단대는 단일후보로 결정되고 야에 이과대, 법대, 생자대에서는 후보자조차 등장하지 못했다.

그럼 선거가 맥없이 되버린 이유가 뭔가? 우선 96년도 학생간부들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유권자의 지지로 탄생했을 임원들이 유권자의 관심밖에 떨어져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학생간부들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학생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선거주체가 되어야 할 3·4학년의 무관심이 아닐까 한다. 취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S)번방, ID: depress메일)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 2 (0561)770-2057-8

업문제로 인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나, 개인의 이익과 안면을 더 가지있게 생각해 자신의 역할이나 의무를 저버리는 선배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무관심속에서 치뤄지고 있는 을 선거는 취업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이 시대의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대학생마저 시대에환경에 편승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물결에 버린 현대 대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대학은 죽었다 말하지 말라'고 외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대학의 주체로서 바로 서야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와 같은 안방선거가 내년에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박홍준
(사과대 사회과학계열)

**형식보다 내실있는
대중평의회**

우리학교 학생의 적어도 1/3은 지방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어느 학교 보다도 기숙사 시설이 미비하다. 여자 기숙사는 아예 없고 그나마 있는 남자 기숙사도 학교에서 떨어진 안암동에 있다. 많은 지방 학생들은 몇 년씩 자취, 하숙을 하거나 전차점에서 지내면서 집살림 필요한 기본적인 학교 복지 시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요즘 대학 종합 평가제에서 우리 학교가 상위권에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열 강의실에서 의자를 날라와 복작거리며 교양 수업을 들을 때, 몇몇 사람들이 학교를 둘러보며 칭찬한다.

허름들은 학부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말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걸로 보이는 제도나 학교의 의양보다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질적으로 발전한 대학종합평가제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기본적 복지 시설인 기숙사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학종합평가제는 그야말로 허풍과 형식뿐이 될 것이다.

우리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 좀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은미
(불교대 불교학부)

**지정좌석제 실시
자율적 교육태도 무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율성이 아닌가 한다. 고등학교시절의 타율적이고 기계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선택에 따른 교육,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의 장이 바로 대학이 아닐까?

그에 반해 2학기부터 시행된 '지정 좌석제'란 것은 교양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누구나 알아서 교양 수업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힘들고 그 대적으로 분반하기도 한다. 반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동 강의실에 2백여명의 학생이 뭉뚱이 앉아서 한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상당부분이 출석체크에 소비되고 출석을 부르고 난 후의 그 여수선행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수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지정 좌석제'란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출석부의 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수업을 듣고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동안 조교가 출석체크를 한다. 얼핏보면 안정된 수업에 시간 절약으로 많은 이점이 있어 보인다.

대학은 자신이 바로 뛰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교양 수업을 위해 일찍 가서 원하는 좌석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자신의 열정이다. 수업에서 앞뒤 좌석의 차이는 누구나 알 것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 시간은 3시간이고 실제 수업은 그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수업에 20여명의 시간을 아끼려 학생들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좀 더 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병현
(상경대 관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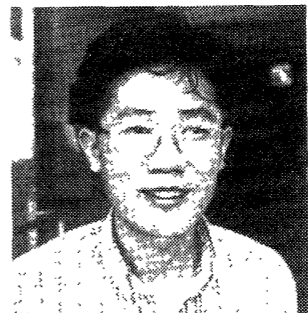
**쓰레기 분리수거
나부터 앞장서야**

교내 쓰레기는 대부분 김포 매립지로 반출될 수 있는 쓰레기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각하고 있다.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매립지 행 일반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각을 해야한다. 학생들이 과학관 뒤의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았다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해당 분리수거함에 직접 넣는 제도이나 우리대학의 경우와는 아직까지도 행정사무장, 교수연구실

동/문/광/장

시로 사는 삶



김은하

지자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까지 불행하다고 믿었고 그 불행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끝없이 자신의 불행과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읽는 사람들에겐 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는 시를 통하여 삶을 견디려 한다. 내 방법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삶은 관측에 갈려 있다.'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소용 없다! 그러나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관상을 깨기 위하여라도 그곳에 가야 한다.

시는 최소한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내 관상은 여전히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에 달아 있다. 한 편의 시를 쓰는 동안, 감히 울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곤 한다. 그에게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다. 아픈 자에게 하는 세상의 위로는 대부분 허위다. 아픈 자에게 나는 더 아픈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신은 그래도 별 아픈가?

나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리라. 시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 한 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가난에 찌들어 질겨진 자들이 시를 쓸 수 있으리라. 시는 돈이 되지 않는다.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를 입힐 뿐이다. 그러나, 무당은 돈을 위하여 굿을 하는 않는다. 굿을 안하면 풀과 마음이 죽을 듯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몰아내기 위하여 춤을 춘다.

이윤학

(국문 90졸·시인)

86년의 어느 늦은 가을 저녁에, 나는 지열에 있었다. 산에 올라가 빈 들감을 바라보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벼를 베는 바닷에는 푸른 줄기가 올라와 있었다. 들간의 풍경은 내 마음속 폐하의 자리와 같았다. 저렇게 견디는 것이 삶이라. 깨진 환상... 쓰러진 삶, 10년 내내 그 자리에 응크리고 앉아 살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

담요 한 장과 취사 도구를 챙겨 들고 폐가를 찾아갔다. 그 폐가가 있는 곳이 지열이었다.

날이 밝으면 자고 어두워지면 일어났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활력이 없었다. 책과 글이 없었다면, 나는 그 폐가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보들레르와 이상벽이 없었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끈질기게 집투성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나는 그때, 이미 많은 걸 기껏이나 이겨냈지 남기려는 사람은 결국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남길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보들레르의 시집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 집투심이 나에게 시를 쓰도록 한다. 너를 극복한 후에 시를 쓰지 않겠다! 그의 불행했던 삶이 남긴 축적은 백년이 지난 뒤에라도 지워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조차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 미화원들이 일괄 수거한 후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처음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버린다면 이중 삼중의 일이 필요없게 된다. 우리대학 1만명의 가족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량을 체계적으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 방식대로 쓰레기 미화원들의 몫으로 돌릴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의 달리 처리방법과 비용, 처리장소에 무척 어려움이 많다. 특정 폐기물은 카페트, 소파, 스피커, 플라스틱 전, 강의를 플라스틱의 등이며, 학생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행사 후 버리지만 이것은 지정된 폐기

물 업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 종류에 따라 학교에 있는 쓰레기 운반용 컨테이너 한 대당 1백20만원 내지 1백50만원 정도의 큰 처리 비용이 든다. 특정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억제하고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 밖에 없다.

우리대학도 이제는 더이상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분리수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우리모두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 하자.

김광희
(관재과 직원)

선거

▶내년엔 기필코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힘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리라.
▶학생회 투표는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학생회를 건설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학생회의 비관을 하지 맙시다. 비관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사법대에도 박수후보 나오면 안될까요?
▶선거를 할 것인지 선거부터 하고 선거하십시오.
▶학생회 강회의 밑거름.
▶모두모두 투표하십시오.
▶학생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 선거인간요. 대선인가요? 학생회는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겠지만 대선 얘기 했다가 또 혼나는 건 아닌지요?
▶6년째 같은 공약 이전 외의 유해 내용도 똑같다.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생회

▶내년엔 기필코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힘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리라.
▶학생회 투표는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학생회를 건설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학생회의 비관을 하지 맙시다. 비관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사법대에도 박수후보 나오면 안될까요?
▶선거를 할 것인지 선거부터 하고 선거하십시오.
▶학생회 강회의 밑거름.
▶모두모두 투표하십시오.
▶학생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 선거인간요. 대선인가요? 학생회는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겠지만 대선 얘기 했다가 또 혼나는 건 아닌지요?
▶6년째 같은 공약 이전 외의 유해 내용도 똑같다.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생회

▶내년엔 기필코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힘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리라.
▶학생회 투표는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학생회를 건설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학생회의 비관을 하지 맙시다. 비관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사법대에도 박수후보 나오면 안될까요?
▶선거를 할 것인지 선거부터 하고 선거하십시오.
▶학생회 강회의 밑거름.
▶모두모두 투표하십시오.
▶학생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 선거인간요. 대선인가요? 학생회는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겠지만 대선 얘기 했다가 또 혼나는 건 아닌지요?
▶6년째 같은 공약 이전 외의 유해 내용도 똑같다.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생회

동/약/광/장

목errick

다. - 기계과 학생회장 이흥광
■승민이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 사무회 91

수고하셨습니다

■민족사 연구회의 모든 식구들 그동안 발표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합니다. - 태모
■11월16일에 DUBS 1학년 수업국원들의 Workshop이 있었어요. 모두 열심히, 좋은 작품 나오길 바랍니다. - DUBS 1학년 한명
■건설 29번째 분과대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해 힘쓰신 유재하·정동수 선운본 식구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분과대 학우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유재하·정동수가 되겠습니다. - 유재하·정동수 올림

열심히 하시다

■11월16일 전기공 카니발,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파트너를... 회이팅! - 「필승」클럽
■동대신문 재발간을 추가해요. 열심히 부쟁합니다. - 일개장 Young
■11월16일 전기공 카니발,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파트너를... 회이팅! - 「필승」클럽
■동대신문 재발간을 추가해요. 열심히 부쟁합니다. - 일개장 Young
■11월16일 전기공 카니발,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파트너를... 회이팅! - 「필승」클럽
■동대신문 재발간을 추가해요. 열심히 부쟁합니다. - 일개장 Young

그리고...

■S-G와 S-K의 3337을 위해... - 신방과 S-G
■동대신문사 학우들 제발 쓸말 안쓸말 가려가며 씩시다. 너무 창피해요. - 공비사건을 본 불의를 보면 웃는는 시민이
■화동아! 힘내라 - 화동이를 사랑하는 95·96영문+ 94

축하합니다

■아마추어 무선국 H1OFMO 이번이 졸업하시는 분을 축하드립니다. 송.송 멋진게 씩시다. - 671 PEY

은방골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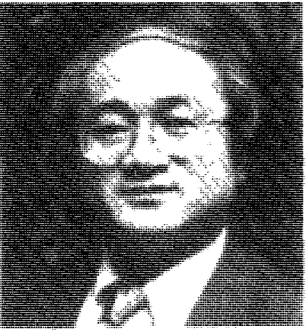
■아마추어 무선국 H1OFMO 이번이 졸업하시는 분을 축하드립니다. 송.송 멋진게 씩시다. - 671 PEY

개, 우리 모임 만든걸 자축하지구나! - 기봉조

수고하셨습니다

■총학, 승락선배 선거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인문대 살림 꾸려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을겁니다. 하! - 흥꾸구
■등용 공연 멋있었어요. 특히 일호! 정말 전부 수고 많으셨어요. - 비밀
■우리 울보 회장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좀 더 정진해서 자주적학생회 건설을 꼭 이루어내십시오. - 자주기
■정원오빠! 7일 생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세라
■은숙아, 22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꿋꿋하게... - 유종이가
■현석이 오빠! 10일이 생일이죠? 진심으로 축하해요. 매스컴 타 나가 좋죠? - Rabbit
■똥똥이, 장구, 이쁜이, 물개, 토끼, 우리 모임 만든걸 자축하지구나! - X
■은산아!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면, 으흠 - 마리가
■수임아, 사랑해 - 송준
■은숙아! 이제는 너와의 싸움인 것 같다. - 너를 믿는 선배가
■수미와 수경이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 S-R
■정민아, 아프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퍼마라. 내가 항상 지켜줄게. - 송준주
■석영아, 요즘 바쁘구나! 그래도 똥똥 열심히 하는 네 모습 보기 좋구나. - 진
■선영이형, 때때 개통된 것 늦게나마 축하드려요. - 수스비
■상교누나 밭사줘요. - 예비군비리
■관경 성민오빠! 사랑해요. - 96팬클럽일동
■표씨 아줌마! 남은 학기 마무리 잘 해요. - M-J
■12월부터 사라될 문화회관에서 영상이 전시회를 합니다. 많이 구경 오세요. - 영상인

언론소유 개혁 통한 대체매체 개발 시급



유 일 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사논단 한국 언론의 실상과 개혁 방향

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보조작과 정치선전의 도구로 일제에 의해 수립된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조직·운영되었다. 언론과 수용자인 국민들의 관계는 쌍방간의 단순한 사회적 교섭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수용자인 국민들은 부표를 통해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화폐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다. 권력은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언론을 감시하지만 언론은 수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알 권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권력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자본은 언론에 대한 재무적 지원활동을 하지만 역시 언론은 수용자의 알 권리의 수탁에 근거하여 자본활동을 감시·비판한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그 역사로부터 익히게 된 물리적 관성과 그 자신의 이기적 본능 때문에 자신을 출신시킨 모태인 수용자 대중의 이익보다는 언론자신과 권력, 또는 자본과 쉽게 친화한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갈등의 회피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속성에 비추어 언론인 개인은 쉽게 전체사회의 규범에 익숙해지면서 언론기관과 그 진정한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게 된다.

첫째, 권력과 언론이 하나의 복합체가 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기(LSA)로서 권력의 자발적인 협조자가 되어 권력의 탄압을 받거나 공안정국과 같은 위기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

둘째, 언론과 상업자본의 결합은 이미 재벌언론의 폐해에서 노정되었듯이 언론기관을 소유한 특정재벌의 목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기관 스스로가 재벌의

인의 의식개혁이다. 민족의 분단과 민족의 불평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민사회의 모든 움직임과 사회집단의 주요동향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시민들이 그 실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언론인을 채용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언론의 개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일제는 제2차대전 패전 후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20만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 협력자와 어정쩡한 기회주의자, 양심적인 개혁세력이 언론계에서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로막는 악법들이 폐기되어 신진개혁세력이 언론계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극우보수 논객들은 언론계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언론의 역사 바로세우기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민주세력의 대체매체개발은 한국언론의 제반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적인 개혁이 될 것인 바 그중 한 두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대학신문을 각 지역의 대체매체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학신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갖고있는 홍보기구 특이성 또는 발간예산의 도움을 받아 신문소를 소규모로 지역대체매체 발전시킬 때 구독료표준이 증가하면서 현재 현역 일일적인 내용으로 편집된 기성신문시장을 파괴할만한 대체매체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대학신문이 이 기능을 수행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둘째로는 최근들이 기성언론의 비평을 목적으로 창간되었거나, 기성언론과 분명한 차별성을 표방하고 있는 주간신문들이 연합하고 시민단체와 연합시립들이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또한나의 새로운 일간신문을 대체언론으로서 석간의 일간신문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한국언론이란 현대사의 축적물로서 한국사회의 경제적 토대위에 구축된 지식과 정보, 의견과 사상의 전달체로서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인 언론인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한국언론이 현재의 위상과 그 문제점을 올바르게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제역역의 관계를 타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언론의 근대화는 구한말 봉건왕권과 개화파 유생들간의 대립으로 개시되어 한때는 민족언론이었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일제의 폭압적 강권과 국내전일 미국 세력들의 곡궤에 묻혀 민족언론으로서의 현대화가 단절되었다. 이어 일제문화정책에 따라 민족을 식민통치에 순응하게 할 목적으로 창간된 민간신문들이 역사적 우여곡절을 있었으나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표적 신문으로 남아 주도적인 보도·해설·논평을 통해 다른 많은 한국 언론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한국민간신문의 창간자금은 민족자본인 지주와 매관적 성격이 강한 초기의 산업자본이 제공하였으며, 민간신문의 창간을 조정하기 위해 일제가 식민지 지식인을 이용한 흔적들이 증거로 남아있다. 일제하의 방송 역시 일

금융노동자 정리해고 '고용 조정제' 합전법 걸림돌인 노동자 해고 수단 관치아닌 자율에 의한 합병 논의돼야

지난 10월4일 재정경제원은 부실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을 (반) 강제하면서, 이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유인책의 하나로 사실상 정리해고인 고용조정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규모의 대형화이며 △대형화를 추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합병이고 △합병 기피요인이라고 판단한 피합병 금융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7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추상적이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제도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과 상충될 뿐 아니라 일의적이라고 자의적인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고용조정제의 적용대상이 부실금융기관에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제화가 되어 금융기관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 경영이 부실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경영합리화한 명분으로 고용조정제도가 확산 적용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합병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나름대로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하 합전법)을 만들었고 이후 합전법에 따라 투자금융사 간에 합병

이 이루어져 투자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금융사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어 199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각종 조세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합병앞선과 합병에 대한 자금지원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합병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합병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는 그간 진행되어온 노사개혁위원회에서도 정쟁사태 중에 하나였으며 어느정도 의견이 조정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에서 노동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노사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전연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며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유독 금융산업 노동자에게만 차별입법하

는 것은 잘못된 행정편주의적 발상에 다른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 집착케 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 노력을 기울이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는 마치 남실패지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은 합병의 여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합병전락은 규모만 대형화되고 총체적 비효율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다시말해 관치에 의한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자율에 의한 화학적 합병만이 향후 합병을 논의할 때 유효하다는 것이다.

권재철
(사무노동부 위원장)

사설

동국의 새로운 도약기

본교가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백 13개 대학중 각 평가 분야별로 상위를 차지,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본교의 교육개혁의지는 초기 교육부의 대학 교육개혁의지를 부추기고 계획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정도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우수대학 평가의 경우 지난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신속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평가는 교육, 연구시설 등 골격의 평가보다 학사일정, 교육과정의 합리성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위주의 평가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각 부분별 항목중 상위를 차지한 연구체계의 수월성 부문은 연구교류제를 신설하고 6개 연구원 4개 연구소로의 통합, 연구비를 중앙관계하여 둔것에서 합리성이 엿보인다. 또한 가장 가치적인 미래 대학 이미지전환 성과는 대학의 정보화 부문에서 드러난다. 각 건물에 연결한 총 1천5백여코트의 근거리 통신망(LAN)구축과 행정업무의 통합 전산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개발은 가치 첨단 지향적이다.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연수 교류 강화와 외국어 교육의 확대도 의미있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미래 지향적 제도가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야별 평가 항목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생활 부문과 교육과정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입학 정원에서 특정모집비율 50% 확대,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지원 확대 등의 유연성이 학생생활 부문에서 눈에 띈다. 그러나 특차 지원의 50%확대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그에따른 혼선이 우려된다. 교육과정부문은 이제까지 많은 논란과정을 겪어온 학부제등 가장 민감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어느정도 정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가득 아쉬움도 없진 않다. 학생들은 학부제 실시에 따라 빠르게 조정되는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존 학과체계의 학생이 후학을 통해 학부제 체계로 졸업하고자 할 때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과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부제 1개생들의 경우는 이번 일시요강이 조정됨에 따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교행정의 좀더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이제까지의 많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현재 캠퍼스 구성원들은 본교의 우수대학 선정결과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다. 그동안 본교는 내적으로 대학 개혁에 관한 신숙한 준비, 꾸준한 발전기금 마련과 외적으로 야구부의 춘계리그 우승, 여러 동아회와 같은 문화행사와 세계 최고 학술회의 유년연 유지 등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이미지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들은 소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동국인의 의지를 하나 둘 모은 새로운 도약기임을 말해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래가 있는 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축자재, 도로, 건설에서
신소재 분야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인재들을 모십니다.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관리	상경, 법정, 어문, 기타인문	100명	1.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7년 2월 취득 예정자 3. 외국과 대학 및 대학원 출신자 (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졸업할 또는 현재 재학 5. 해외에 유학한 적이 없는 자 6. 학점관리기사 및 상임건설안전 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연구	화학, 화공, 고분자, 공업화학,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술	무기재료(상기관련학과포함)		
영업	전지계산, 통계, 수화		
디자인	디자인관련학과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2차: 필기시험
과목: TOEIC, 직무능력 및 적성
다. 3차: 면접 및 신체검사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다.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라. 국가보훈처 취업보조대상자 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6년 11월 8일(금) ~ 11월 15일(금) 09:00~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KCC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3450-5131~7, 5520-4
부산	부산 영일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899-1	512-3211~5
		대우시 중구 태평로 371 214-25	252-4321~4
울산	울산 영일소	경남 창원시 중구 영포동 777	80-1717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0	261-0120
충주	충주 영일소	광주시 공산구 우산동 1596-2	943-821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923	211-9277~9
대전	대전 영일소	충남 대천시 대덕구 영죽동 230	635-4323~8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	44-6821

다. 접수처: KCC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1301-4 금강·고려 B/구(우편번호: 107-173)
전화 3450-5131~7, 5520-4, 5512~15
위치: 서울시 서초구 제일생명 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하차)

5.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합격 복무종류는 96년 12월말 이전 전직자에 한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람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 http://www.kccworld.co.kr

◆ 심포지엄-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언론과 민주주의

한국언론의 민주적 개혁과 대학신문의 역할 고민

재벌 언론 법적규제와 언론인 의식개혁 등 제시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재벌과 언론’ ‘언론과 민주주의-한총련 통일 대추전을 통해 본 대학언론과 제도언론’ 두 문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학술단체 협의회(학단협)와 전국대학 신문기자 연합(전대신문) 주최로 열린 언론에 관한 심포지엄 제목이다.

이 심포지엄들은 최근 한총련 통일축전과 간접시간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됐던 사건들에 대해 각 언론사들의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양태와 대학언론의 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현 언론 자태에 대한 연구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학단협이 주최한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심포지엄은 재벌과 언론이 얽힌 사회 통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제도와 언론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문제 분석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재벌과 언론-90년대의 지배 구조(이상희·상지대 이상장) △재벌

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 체계의 개혁 방향(홍덕률·대구대 교수, 공제욱·상지대 교수) △90년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 구조 변동(김서중·공주대 교수) △재벌과 갈등(김상조·한성대 교수)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조 강연자 이상희씨는 “조선, 동아, 한국일보와 같이 재벌과 언론이 하나로 유착돼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의 소유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언론들은 이른바 공익성을 지닌 문화기관이라는 성격을 벗어 던지고 그 자신이 하나의 언론산업으로, 거대한 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언론산업이 필연적으로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 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소유관계로 인해 보수언론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뿐더러 경영과 편집의 분리 또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

한실이 이러한가 때문에 대중매체가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기는 하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 대학로 총서단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언론과 민주주의’ 심포지엄.

논의되고 있다.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규제 능력이 뛰어나다면 모르겠지만 자체 심의제도 등의 자율규제 운용실태는 오히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배제대 김중서 교

수는 △편견권의 독립 △기업공개와 소유 지분 둘러싼 내적 결정권 확보 △광고 규제와 공정거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가권력의 언론지배라는 한계 때문에 사상통제법 체계 철폐운동의 맥락에서 이루

어 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극대화됨에 따라 언론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김동규 교수는 언론운동의 정체성 확보,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 사회적 연대 활성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편, 전대신문이 주최한 심포지엄 ‘언론과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언론의 개혁과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각됐다.

△대학신문 언론 자유 침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전승수·전대기림 의장)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이효상·성균관대 교수) △문민시대 언론권력의 실태(손석춘·한겨레 신문기자) △한국언론의 개혁 방안(유일상·건국대 교수)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임주웅 연노련 기획실장과 전동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실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한겨레 신문 손석춘 기자는 “한총련 통일 대추전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우리 언론이 민주화와 통일로부터 얼마나 멀리있나 깨닫게 되었다”며 “언론은 처음부터 학생운동에 적대적 자세를 보이며, 공권력을 끌어들이며 총기 사용이라는 극단 처방을 내리는데 앞장섰다. 언론의 이러한 비이성적, 편파적 보도는 과연 언론의 자발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주문일지를 생각해 보면 문민시대 정치권력의 통제능력은 과거에 비해 더 세련됐는지 모르나 여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문민시대의 ‘언론 통제’ 속에서

대학신문의 운신의 폭은 명백히 축소되었다. 현재 승실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40여 개의 대학신문사가 한총련 통일축전, 간접시간 등에 대한 보도로 정상적인 신문 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신문사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효상 교수는 “일반 기성언론의 언론이 집권세력이나 기득권 세력과 같은 강자들을 대변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는 대학 신문과 같이 기득권 세력이나 보수 이데올로기에 열매이지 않은 언론의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 더욱더 요구된다. 대학신문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언론으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위상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 전동환씨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말해줘야 하며,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안 만들어지는 대학언론이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위의 심포지엄은 현재 언론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혁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특히 언론의 재벌 소유방지와 언론인의 의식개혁이 선행해야 할 해결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 이상 언론의 대성만으로 부족하다. 언론인들의 건전한 의식과 함께 이러한 의식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시켜 주는 독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고지은 기자)

◆ 민주노동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노동법 개정 중심의 활동 전개

“합법성 인정받아 사회개혁 활동 촉진할 것”

11월 10일 여의도에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인다. 88년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 이래 최대수이다. 아름다운 청년전대대의 불꽃과 87년 6월과 7·8월 노동자 대항쟁을 거쳐 이어져 온 민주노동운동이 1995년 11월 12일 생산직·사무직 문직, 중소·대기업, 공공·민간노동자 50만 명을 포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의 출범 한달 기념과 대중적인 노동법개정투쟁 의지를 모으는 날이다.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전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의 건설’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한다’고 출범선언에서 민주노동이 밝혔듯이 개별 기업별노조의 힘만으로는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실현하기 어렵다. 바로 민주노동 출범의 배경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키위해 민주노동은 준비의 시점부터 세계개혁, 의료보험 통합위원회, 교육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위원회 등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87년 6월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는 일정정도 있었으나 외적 재벌과

언론의 독선, 독재는 경제, 사회, 정치 전방의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의 사회개혁투쟁과 산업현장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사회 민주화의 실효를 채우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노력들이고 민주노동과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는 그를 위한 디딤돌이다. 따라서 올바른 노동법 개정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시금석이고 출발인 것이다. 사람에게 한다면 잔치이고 즐거움이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 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투쟁적 측면에서 사회개혁투쟁을 살펴보자. 일례로 의료보험 통합위원회는 95년 현재 4~5조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

금을 국민생활향상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란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 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투쟁적 측면에서 사회개혁투쟁을 살펴보자. 일례로 의료보험 통합위원회는 95년 현재 4~5조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

금을 국민생활향상에 쓸 수 있게 할 것이란 실질적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민정부 등장 이후 허해진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실효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은 ‘돌 잔치’ 여우도 없이 11월 10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와 의지를 모은다. 바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지이다. ‘노동자의 권리에서 낮잡자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독일의 법格言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민주노동은 ‘돌 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사관계를 규정짓는 사실상의 전국중앙조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이 합법성을 획득한다면 조직확대는 물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회 복지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주노동은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투쟁(현재 노동시간 94년 제조업 48.7시간으로 세계 8위), 상품 백화점투쟁의 사고와 산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작업중지권 확보투쟁, 경영참가(재벌 비자금 비리 적절 등), 직장발전위원회를 노동조합수로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투쟁을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삶의 질,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노동운동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화와 평화 통일,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로 노동법 개정을 통한 민주노동, 전교조의 합법성은 이러한 사회개혁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이 우리 모두의 생존권 보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참교육과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어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행정의 민주화가 이룩된다면, 민주노동이 합법화되어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결정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의료보험제도, 산업경제정책을 민주화한다면 분명 우리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촉진되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병 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동약로

역사 한편



경주점 총학생회(이하 총학)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6일 오후 5시경 원서 등록이 마감됐으나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분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분실된 등록원서에 관해 중선위 한 위원이 “두 후보자가 등록한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한 데 대해 중선위 위원장은 “보지 못했다”고 부인해 중선위들간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같은 장소에 있던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자 ‘인상규명’이라는 제안으로 회의는 일단락 됐다.

다음날(7일) 오전 8시30분 1차회의 제안으로 열린 ‘새로 재등록을 받자’라는 의견이 나오자 중선위들은 사무실을 나갔고 회의장 앞을 지키던 모속 구단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2차회의는 무산됐다.

한편 당일 저녁 9시30분 3차회의에서 중선위 위원장은 “6일 등록마감 날 두 후보자가 분명 등록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다시 두 후보자의 방향에 초점이 모아졌고, 중선위에서 알아본 결과 한 후보진영이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위원은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지만 원서서류가 분실된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중선위는 두가지 해결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사과 자보를 붙이고 중선위에 재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일 오후 마감된 후보자에 한해 서류심사 후 선거세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두 안건 중 표결한 결과 전자의 안건이 관철됐다.

이로써 13년간 경주점 총학선거에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선위는 선거관리대상을 잃어버린 뿐 아니라 학생회 위상 또한 실추시켰다.

공신력을 잃은 중선위의 위상찾기와 우려폭결 끝에 세계 될 14대 총학생회가 97년을 어떻게 장식할지 학우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조인선 기자)

正道경영·초우량LG
도약 2005

Elite? No, Super Elite!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 High Performing Leader 양성 편

LG는 젊은 HPI(High Potential Individual)를 발굴하여 세계화 능력과 정보기술, 문제해결 스킬 등의 교육 및 시련 학습(Action Learning)을 통해 진정한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갑니다.

세계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는 양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며, 최고의 고객감동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보람있는 직장이 되기 위한 도약 2005의 실현 사업중 하나로 High Performing Leader를 양성합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제29대 총학생회와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맞아 본사는 각 후보자를 본사 회의실에서 개별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김인영(사학2) 후보는 김인영, 홍미리 후보가 모두 단독 출마했으며 출마 동기, 공약사항, 전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질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후보들에게 감사드리며 개표순간까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제29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학생회 강화에 총력” 함께 고민하는 학생회로



△정: 구장주(야간영문4) 부: 원진욱(사4)

원진욱(사4)은 과학생회 활동이 M·T와 체육대회가 주요활동이 아닌 과토론회의 활성화와 과대표 교양작업등을 통해 총학생회의 근간인 학생회를 강화하겠다고. 둘째 공인담당 분석과 민주기부금 쟁취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면서 구속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맡아 나갈 것이다. 자치활동을 인정, 보장하지 않는 국보법과 노동법에 관련된 활동을 학교내에서부터 전개하겠다고. 셋째 학생회 본분으로서 지금까지 간존해온 학자부의 단점을 없애 학원자주화 투쟁 10년의 성과를 발전시켜 10년의 학

제29대 총학생회에 단독입후보한 구장주(야간영문4), 원진욱(사학4)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거리 선전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올해 야간강과 총학생회를 운영하면서 자주회투쟁을 전개해왔다. 중앙 집부를 중심으로 집단활동을 하면서 단과대 운동의 중요함을 느꼈다. 학자부활동에서도 단위 분위기가 체 정비 되지 않았고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자부의 내실을 기하는 것과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했다. 동국대 토대를 마련하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이번 28대 총학생회를 진다. 평가한다
=열의와 헌신으로 만들어졌다. 상반기 학원자주화 투쟁, 새내기 새로 배움터, 통일대행진, 농활, 연대행진등 중심거리를 잘 잡았다. 그러나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시행했지만 단과대와 과학생회의 논의 부족으로 총학과 양분화되는 개별화 양상을 보여줬다. 5.18투쟁을 전개하면서 학생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볼 수 있었지만 등록금 인상, 학부제 실시, 공간문제등 학생들의 불만은 증가했고 이러한 요구를 한곳으로 모으는데 미흡했다. 결국 단과대의 산발적인 투쟁이 어느정도 성실화 수행했지만 이를 하나의 줄기로 표출해내지 못했다.
-주요정책과 공약사항은,
=우선 첫째 학생회의 대중적 강화에

여하는 대중적인 강좌개설이 되도록 문학, 정치,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 유망한 선학을 초빙하는데 힘을 쏟겠다.
-올해 역시 수강신청제도의 혼란, 공간부족 등의 문제와 학부제 실시, 제3캠퍼스 이전논의, 대학총합평가인정제에 의한 변화가 심했던 한해였고 내년 또한 큰 전환점이 될 거라 예상된다. 만약 29대 총학생회를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달라.
=올해는 수강신청제도, 공간부족, 학부제 실시 등에 관해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올바르게 합의, 논의하지 못했다. 학자부 10년을 총화하면서 성과는 계속하고 한계는 인정하며 하나 둘씩 풀려갈 것이다. 동대의 변화된 모습은 학부제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문에 관련된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어 버렸다. 폐강, 분강으로 수업이 불안하고 지속적인 교과과정의 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양과목중 진보적인 교수의 강의는 폐강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났고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강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않는 교과과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간부족문제에서는 자치공간확보에 대한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제3캠퍼스 이전에 관련해서는 제 주체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연대사업으로 인해 학생회가 다소 위축되었다. 학생회 강화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학외에서는 학생회의 위기를 조정하는 사회분위기, 학내에서는 교육제도 개편(학부제)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학생회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은 골간체계 단위인 과학생회와 학부 단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만 가능하다. 97년에는 새내기 교양 학교에 중점을 두면서 학부제 시대 특색한 학생회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상홍 기자)

●●● 인터넷 따라잡기(2)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면 된다. 너무나 개념적일 수도 아니, 어쩌면 복잡한 그 무엇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인터넷은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전화기의 예를 한 번 들어보자. 전화기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자신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순간, 세계 어디라도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게 된다.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컴퓨터가 자체로서는 자신의 디스크에 담긴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가 전화선이나 랜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글과 영상, 음성 모두가 오갈 수 있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인터넷은 결국 전세계 컴퓨터들의 연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 방대한 주소들의 관리 는 미국의 NIC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유동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서 인터넷 여행을 하게 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은 그 고유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NIC에 등록이 되고, 이 자료들은 각각의 네트워크 서버(네트워크 관리 컴퓨터)들에게 알려져, 그 하위 네트워크 연결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인터넷 서명(여행)을 할 때, 그 찾고자 하는 주소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하면 언어차이 때문에 통화가 힘들듯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완벽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언어(프로토콜)와 그 표현 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처럼 컴퓨터간의 정보

◆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올바른 성인식 뿌리내리기” 학생들 적극 참여 유도할터



△정: 김인영(사2) 부: 홍미리(화2)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후보로 나선 김인영(사학2), 홍미리(화학2)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모두 범어리들이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린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성담론화와 페미니즘을 담보해내며, 동국내 여학생들과 함께 협의하고 우리들만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되었다.
-제11대 총여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제11대 총여의 주된 공약은 총여학생회의 인식강화와 단위대행이었다. 성문폐쇄와 배척이 대학을 통해 총여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강화되었으나 단위대행은 미비했던 것 같다. 제12대 총여는 11대의 성과를 받아 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제11대 총여학생회의 배척이 대학, 성문폐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여학생복지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여학생 휴게실 문제와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가?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복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교의 복지실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여학생 휴게실은 도서관과 계산관 두 곳에 있는데 소파를 가져다 놓은 것외에는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현실이다. 생리대 자판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전달했지만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없이 설치를 뒤로 미루고, 여학생들은 그만큼 불편

을 겪고 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공약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제12대 총여는 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단위대행이라고 생각한다. 성정치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 신고전화로 타어성단체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 시킬 것이다.
또한 여성주간을 선포함으로써 여성들만의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회 배척이 대학, 성문폐쇄가 그 범위가 광범위해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해서 제2회 행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가가고 싶다.
한가지 더 꼽는다면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위한 대중집회를 가장 예정이다. 기존의 구조를 외치고 투쟁가를 부르는 집회가 아니라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는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동양내 모든 여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훈 기자)

◆제34회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②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③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장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입상작 발표:1997년 1월1일과 본지 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시 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②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심사
①시 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②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③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장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1997년 1월1일과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아깝다, 좋은 인재!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벌써 그만두다니...

인재들의 능력을 120% 개발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삼양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에서는 이를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양그룹은 인재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해외연수등의 신입사원교육으로, 1년간 자유롭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해외 우수 대학의 MBA과정 교육으로, 선진경영기법, 신규사업, 국제금융에 대한 Global Manager교육으로 -삼양그룹의 인재에 대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삼양그룹은 이미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 섬유부문 : 원사에서 패션까지 수직계열화 추진
- 세계 5대 폴리에스터 메이커 진입 추진
- 화학부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첨단고분자화학분야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TPA생산능력 확대
-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환경사업 강화
- 플랜트 건설 사업의 중점 추진
- 건강산업 부문 : 세계 최초로 항암제 개발의 대량생산 성공
- 폐취제거 개발 및 전문의약회사 설립 추진
- 정보통신 부문 : 인터넷 구축, 공중자주통신 사업, 화상회의 사업
- 국내 유선방송사업과 미국내 무선 CATV사업

● 사업영역: 섬유, 식품, 사료, 화학, 기계, 엔지니어링, 의료, 정보통신, 금융, 연구개발, 해외사업, 무역

1996년 11월 11일
본인 김성훈

사직서
성명: 김성훈
소속: 경영혁신팀
직위: 사원
입사년월일: 1996. 1. 1
퇴사년월일: 1996. 1. 1

사유: 저는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노약자는 저를 개발하고 저의 미래를 찾기위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달 안되는 생활이었지만 이회사에서 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매체비평

‘제1회 인권영화제’의의

이 시대 양심적 목소리를 토로케하는 영화제

인권문제, 온건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제1회 인권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씨네21', '키노'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11월 22일부터는 구미시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 전국적인 상영에 들어간다.

엘네스티 인터네셔널(국제 시민 위원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작인 '잊지 말자 Contre l'oubli'를 개막 초정 작으로 하여, 매일 '여성, 그 참담함', '노동자는 싸운다', '평화를 위하여', '소수자의 꿈과 현실', '인권침해, 그 아픔이 없는 상처', '국가, 그 가면을 쓴 폭력',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 하에 서른 세 편의 영화가 다양한 주제 제기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영화제에 '인권과 영화의 의미'를 되짚어볼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기는 해도, 한 편 한 편 영화는 관객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를 재고시키

는 신선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각종 사회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동네투이 되는 영화(혹은 비디오), 영화의 태생이 본래부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만한 양심적인 발문을 서둘러 마야버리는 검열과 상업주의, 할리우드 영화 앞에 풀어버린 이 땅의 무릎들, 이것이 뻗하게 지적되는 우리의 영화 문화 현주소이다.

그런데 영화가 인권의 가치를 쳐두고 우리를 만나러 왔다. 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변하는 인권의 아성이 흠집을 낼 수 있겠는가. 이 야만적인 문명의 세계에서도, 아니 그 더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서라도 더욱 더, 인간 존엄의 '휴머니즘'은 숭고한 가치이다. 이제 우리 시대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영화가 토로하게끔하는 이 영화제는 여

성, 인종, 민족, 노동 등의 정점을 가지고 박해받는 인간들을 우리 눈앞에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의의를 달고 싶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깨어 일어나게끔 하는 지에 앞서, '전부 인권론에 준거해 일일이 열거된 문제들을 계몽의 일장에서 주체화시킨 것의 한계를 말하고자 한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인간 생명 자체의 고귀함도 아니다. 인권은 정치적인 일에서 그 범위가 결정되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자유인 남성만이 인권이 있었다. 여성과 흑인은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 사람대접을 받았다. 여권론 계인-레즈비언에 대해, 왜 지만도 못한 XX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인권이 있다. 배 속의 태아도 존엄한 인간인가, 인락사는 인도 주의적인가 등의 문제, 우리 사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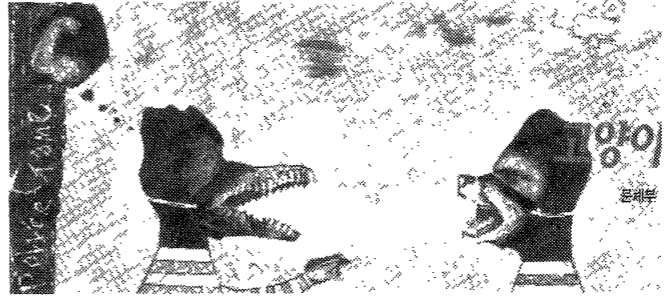
새롭게 안고 있는 동남 아시아계 산업연수생과 러시아인 매춘부의 인권 문제 등은 인권을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권리로 생각하고 원해받는 인권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방식의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

'잊지 말자', 이 영화는 다채로운 다큐멘터리 양식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프랑스의 대명사들이 힘으로 만든 엘네스티 인터네셔널 프랑스 지국의 역적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여기서 또 의의를 달고 싶다. 그것은 BAND AKD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나 ASR의 'We Are The World.'로부터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못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한승희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과정)

심의유감

“공론은 아무 것도 잃은 게 없다”



올들어 문화계는 '사건심의회'에 관한 시비로 인해 부쩍 시끄러워졌다. 지난 6월 7일 '음반에 관한 사전심의의 철폐'에 이어 며칠전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이 난 상황에서, 만화심의의 특별이슈 이상기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화계를 비롯한 대중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분석으로, 먼저 사전심의의 뿌리찾기를 위해 일제 시대로 가야한다. 공론의 사전심의는 바로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극장취체법', '레코드취체법', '조선영화령' 등 각종 법률에서 뿌리내려졌던 것이다. 즉, 그것은 지배권력의 통제수단이었다.

그 후, 88년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예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되면서 현상적으론 사전심의 폐지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연법은 문학, 미술, 창작

발표 등에 관한 것이지,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되는 창작물은 제외시켰다. 이는 '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유로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그럼, 이 시대에 심의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음반에 관한 사전심의는 지난 6월 7일 '자유' 공연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는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이 91년에 불법으로, 93년에 '92년 장마 종료에서'가 묶이면서 정태춘은 직접 사전심의의 철폐투쟁에 나섰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의 강산에의 '돈' 안치환의 '죽음'들이 사전심의에 걸렸었다. 그러나 비디오물은 현재 영화사전 심의가 위헌이 됐음에도 여전히 심

의를 받아야할 형편에 있다.

영화사전심의는 대중적인 사전심의의 철폐운동의 결과 지난 4일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9년 장산꽃개의 광주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가 발급행이 매겨지자 91년 감독 홍기선씨가 헌법소원을 제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검열철폐의 대안으로 제시한 완전검급심의회, 등급의영화진흥관 설치에 대한 논란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각종 예술창작물 사전심의의 철폐바람을 과감히 거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만화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만화를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만화계는 만화심의철폐추진위원회(위원장=황미나)를 조직, 지난 3일 집회주도등 심의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의의 상황에 대해 대중음악평론가 강현씨는 "이제 사후심의로 넘어가면 풍속사범들의 차원에서 문제삼아 제작사는 음반수거의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며 "공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네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서태지의 시대유감은 부활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뿐, 그 메시지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박요선 기자)

박재동 첫 장편만화 영화 '오돌또기'

4.3항쟁 토대로한 리얼리즘 애니메이션

오랫동안 묻혀져 왔던 섬 이야기가 있다. 커다란 민족적 비극이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 4.3항쟁. 이 이야기를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첫 장편만화 영화작품 '오돌또기'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달 12일까지 서울 충무로 인사동 '백승화랑'과 '나화랑', 그리고 전통시장 '이러가야'에서 4.3항쟁 50주년인 1998년에 발표될 '오돌또기'의 작품설명회와 함께 제작비금 마련을 위한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이 전시회에서는 영화에 등장할 대형 배경화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전시하고 영화의 티켓과 셀(영화그림)에매, 그리고 캐릭터 인형과 전시회 포스터, 배경 및 미술감독인 강요배씨의 작품과 홍강욱인 박재동씨의 '한겨레 그림판'영화도 판매하여 영화제작에 드는 약 25억원의 제작비도 충당할 예정이다.

'오돌또기'는 달과 산과 바다와 대지의 온갖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일하며 평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주민의 모습을 그린 창민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장편만화영화 '오돌또기'는 4월이던 유제



의 노란꽃, 가을이면 익세의 흰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함께 말쑥박기하며 놀던 '동경이' '웬생이' '뽕뽕' '누렁코' '해이' 등의 순수한 아이들에게 4.3이라는 슬픈 역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동시에 이런 역사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화해를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4.3항쟁만이 아닌 1947년부터 1949년 까지의 제주민의 전반적인 삶을 조명하면서 학살·검거·약탈등

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빨간머리가 아닌 너무나도 평범했던 제주민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찰가죽의 모습도 객관적 시각으로 담아내 선과 악을 흑과 백으로 뚜렷이 나누는 것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자연스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점도 지금까지의 다른 애니메이션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박재동 화백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사실 또한 피해가지 않아야 했던 것들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고

말하고 '제주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역사의 비바람을 맞아 흔들리고 쭈이는 모습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인간애와 그로 인한 희망과 좌절, 휴머니즘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화영화의 영역에 첫발을 내딛는 박재동 화백이 4.3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 그러나 실사영화로도 표현해내기 어려운 4.3항쟁을 사실을 토대로 한 리얼리즘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15일에서 25일까지 '서울아트갤러리'에서 연 장전시되며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제주시 새조각거리'에서 제주 전시회를 갖는다.

(김상만 기자)

매아리

농부의 마음

가 투표율 50%에 겨우 미치지 못한 투표율과 단일 후보들의 출현만을 나타냈다.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학생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하녀이며, 일반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기성연봉인들의 거만함을 배운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나 하나의 생각만으로 말하려 한것

교육개혁 실천사업 평가 전국 1위!

한국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에서

미래를 밝힐 참된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연구 시스템 확충, 일산의 첨단과학 캠퍼스조성, 국내최초 양한방 중합병원 건립등 개교 90주년을 맞아 '비전' 동국 100년' 마스터플랜으로 21세기 초일류 대학을 실현하는 동국대학교-올해 교육개혁 실천사업 평가에서도 당당히 전국종합 1위로 선정되어 명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동국대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참된 미래를 열어 나가십시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